



2 주 대 철

기호

1955 년 08 월 21 일생 (만65세)

주 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13길 107(화곡동, 화곡푸르지오아파트) 130-104

학력 및 경력

- 한세대학교대학원 공학박사
- KBIZ AMP초대 총동문회장
- 법제처 국민법제관(중소기업분야)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운영위원 역임
-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운영위원장 역임
-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자격심사위원장 역임
- 중소기업중앙회 법개정위원장 역임
- 중소기업중앙회 ICT산업위원회 위원장 역임
- 중소기업중앙회 23대, 24대, 25대 부회장 역임
-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이사장(現)

협동조합 경영에 관한 소견

존경하는 회원사 여러분!

우리 조합은 1953년 대한전기통신공업협회를 출발점으로 1962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정과 함께 우리나라 정보통신 역사의 현장을 굳건히 지켜오면서 오늘의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으로 우뚝 성장하였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다!

저 주대철과 함께한 우리 조합이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정부에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판로확보를 위해 40여 년간 운영해 오던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자간경쟁제도”로 전환하였습니다.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로 수많은 중소기업의 도산은 물론이고 전국의 많은 협동조합들이 해산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조합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아니면 흔들리는 조합을 바로 세울 수 없었기에 저는 과감하게 인적구조 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2006년 당시 우리 조합 재무제표는 자산총액이 〇원 이었습니다.

용산구 원효로의 조합사무실을 매각하고 현재의 마포사옥을 매입하여 임대수익을 올리며 회원사와 함께 노력한 결과년도 결산 후 발생하는 잉여금 처분에서 회원사에 지분배당을 해 왔습니다. 험난한 난국을 헤쳐나온 결과 현재 우리 조합의 신용평가 등급은 BBB+이며 기술등급 T4를 평가받아 안정적이고 우수한 조합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마포사옥을 구입금액(19억 원)으로 계상한 자산은 45억 4천만 원으로 재무구조의 안정을 구축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전문가로서 역량 발휘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청 정책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회원사들에게 판로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지자체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를 강조하고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가 이루어지도록 공공기관 방문을 발로 뛰면서 실천하였습니다.

조합의 위상을 높이고 더 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합 이사장직에 안주하지 않고 중소기업중앙회 이사 3년과 부회장을 12년간 역임하면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 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일익에 수반되는 제도개편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새로운 ICT산업생태계 적응을 위한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ICT산업위원회 위원장을 수행하면서 공공부문 중소기업 ICT장비 구매 활성화를 건의하는 등 ICT 산업발전의 전반에 걸쳐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공공기관의 중기간제품 공사용 자재 분리발주 이행력이 높아지고 조합품목의 하나인 “광다중화장치”는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동 제품을 구매하는데 절대적 역할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통합배선반”을 중기간제품으로 지정받는 과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충이 있었습니다. 지정물품 공청회에서 이해관계 단체는 사생결단식 반대의견을 개진하였고 관련 정부 부처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는 등 험난의 연속이었지만 우리는 결국 해냈습니다. “동보장치” 역시 행정방송장치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재난예경보, 자동

음성통보장치를 추가로 동보장치에 편입하였습니다.

일반 경쟁제품이었던 마을방송과 가가호호를 “마을무선방송”으로 추가 지정받는데 비조합원들과 관련된 이해 단체의 반대를 뚫고 성공하였습니다.

“주파수분할장치” 또한 구매현장에서 퇴출당한 기존 품목을 과감히 없애고 대체 품목이라는 전략으로 신규 물품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지정 초기여서 실적은 미미하지만, LH, SH등 제품 사용도가 많은 공공기관에 분리발주를 하도록 건의함으로서 향후 조합의 대표적 품목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변화를 선도하는 조합

4차산업의 변화는 빛의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변화한다고 합니다.

자칫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은 일시적 위기에 처할 수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회원사에게 적절한 정보제공과 정부 정책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조합부설연구소”를 설립하였습니다.

부설연구소는 제4차산업 혁명시대를 선도하는 융·복합 중심의 조합으로 회원사가 실질적으로 필요로하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4차산업의 주도자로 변화를 선도하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위기에는 노련한 지도자, 선장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예외일 수 없고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성장이 목표가 아니라 생존이 목표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배가 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나면 노련한 선장의 리더십이 필요하듯이 올 한해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2022년부터 시행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신청이 금년 5월 설명회에 이어 본격적인 지정 신청업무에 돌입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합 지정물품은 220개 회원사 경영의 혈액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상황에 중소기업 정책전문가인 저 주대철의 경험과 역량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회원사와 함께 걸어온 길 앞으로도 함께 건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20일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이사장 후보 기호2번 주대철

주대철이 새롭게 약속하는 공약

1 공공구매 판로를 확보하겠습니다.

국가기관, 지자체, 교육청, LH, SH 등 공공기관의 분리발주가 정책화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여 회원사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공공구매 판로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2 해외 시장 개척, 수출 도우미 역할을 하겠습니다.

방탄소년단(BTS), 손흥민 등 한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해외 정상과 국제적 기업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우리 조합 회원들의 우수한 제품을 해외 시장에 홍보하여 실질적으로 수출이 될 수 있는 수출 도우미 역할을 하겠습니다.

3 공동판매대금 수수료를 현실화 하겠습니다.

현재 단편 일률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공동판매대금 조합 수수료를 품목별 수주금액별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여 회원사에게 이익이 가고 부담을 줄이는 수수료 현실화를 실현하겠습니다.

4 회원사와 함께 새로운 시장개척을 하겠습니다.

올해 4월 중소기업 기본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중소기업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대규모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회원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SI사업자로서 대기업과 경쟁하는 패러다임의 신시장 개척에 앞장서겠습니다.

5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에 앞장서겠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옥죄는 정책이 많은데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등장하였습니다.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해박한 식견으로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에 앞장서겠습니다.

기호 